

중국 경제와 산업의 이해를 통해 산업연구의 방향성 수립

-강민성 부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외 2인

1. 출 장 개 요

- 출장기간 : 2010. 10. 21(목) ~ 2010. 10. 23(토)
- 출장지역 : 중국 상하이
- 출장자 : 3명
 - 송병준 원장
 - 홍지승 연구위원(중소·벤처기업 연구실)
 - 강민성 부연구위원(성장동력산업연구센터)
- 방문 기관
 - 상하이 엑스포 한국/일본 기업관
 - 상하이 엑스포 한국/중국/일본 국가관

- 상하이 사회과학원
- 상하이 이마트
- 상하이 과학기술관 및 상하이 성시규획전시관

2. 출 장 목 적

- 상하이 엑스포를 방문, 중국의 경제와 과학기술 수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국내 산업과 기업정책 연구의 방향성을 도모
- 엑스포 참여를 통하여 일본이 추구하는 대중국 브랜드 강화 전략을 탐색
- 상하이 사회과학원과의 상호 협력 강화
- 중국 유통산업의 발전방향과 문제점 탐색

3. 방문 일정 및 면담자

일 자	일 정
10. 21(목)	서울 출발 → 상하이 도착 상하이 엑스포 한국기업연합관 (면담자: 김학서 관장) 상하이 엑스포 일본산업관
10. 22(금)	상하이 엑스포 한국국가관 (면담자: 박은우 관장) 상하이 엑스포 일본국가관 상하이 엑스포 중국국가관 상하이 사회과학원 (면담자: 좌학금 상무부원장 외)
10. 23(토)	상하이 이마트 상하이 과학기술관 및 상하이 성시규획전시관 상하이 출발 → 서울 도착

4. 복명 내용

(1) 상하이엑스포 개요

- 사상 최대 규모인 상하이 엑스포가 'Better Life, Better City'를 주제로 2010년 5월 1일부터 10월말까지 6개월간 개최됨

* 엑스포는 등록 엑스포(Registered Exhibition)와 인정 엑스포(Recognized Exhibition)로 구분됨. 등록엑스포는 대규모의 종합 박람회로서 개최주기는 5년이며, 지난 등록엑스포는 2005년 3월~9월 일본 아이치에서 '자연의 예지'를 주제로 열린바 있음. 한편, 인정엑스포는 등록엑스포 사이에 개최되며, 2012년 여수에서 인정엑스포가 열릴 예정임

- 상하이 황포강 양안인 포동과 포서지역에서 여의도 면적의 2/3에 달하는 방대한 부지에서 개최되며, 총 192개 국가가 참여하고 방문객은 7천만명을 상회할 것으로 예상됨
- 최첨단 기기 등 실물 전시 위주의 기존 엑스포와 달리, 상하이 엑스포는 최첨단 영상물 또는 기법을 적극 활용함으로써 경제적 엑스포를 지향하는 특징이 있음
- 우리나라는 연면적 7,683m² 규모의 독립 국가관과 12개의 기업이 공동 설치한 독립 기업관을 각각 설치하여 참가함
 - 우리나라는 상하이 엑스포를 우리의 경제와 문화를 알리는 기회로 삼을 예정임
 - 특히, 우리 기업관을 통해 우리 기업의 대중국 브랜드 인지도를 제고하는 한편, 우리 국가관을 통해서도 우리나라 이미지를 제고하여 중국인들에게 믿을 수 있는 나라, 강한 경제력을 갖춘 나라의 국가브랜드를 홍보할 계획임
 - 또한, 2012년 개최될 여수 엑스포를 함께 효과적으로 홍보함

(2) 한국/일본 기업관 방문 내용

- 한국 기업관은 국내 12개 기업이 공동 설치하여 홍보중임
 - 참여 기업은 금호아시아나, 두산, 롯데, 삼성전자, 신세계이마트, 포스코, 한전, 현대차, 효성, LG, SKT, STX 등 12개 기업임
 - 12개 참여기업은 "Green City, Green Life"를 주제로 참가기업의 기술, 특히 녹색기술이 담긴 미래의 도시생활을 구현하는 특징이 있음
 - 한국기업관 외관은 역동적인 전통 춤사위와 상모돌리기를 형상화하여 사람과 환경, 문명이 선순환하는 과정을 표현하였고, 건물을 둘러싼 외피는 엑스포 종료 후 재활용이 가능한 천막재를 사용함
 - * 엑스포 참가사의 관람객들에게 다가가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크게 건 축물과 주제영상 두 가지임
 - 건물 내 전시, 영상물은 참가기업이 보유한 기술과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알릴 수 있도록 연출되었으며 특히, 관람객들과 소통하는 interactive 기술들이 많이 활용됨으로써 다른 국가 기업전시관들과 차별화하면서 높은 홍보효과를 거두고 있음
 - 다만, 기업명 등이 지나치게 노출되는 것을 억제하는 대회 방침으로 인해서 각 기업들은 각자의 사업영역을 알리면서 앞선 기술을 홍보하고 있으며, 특히 중국인에게 친숙한 이미지를 제공하려는 시도가 많음
- 일본 기업관은 8개 기업이 공동 설치하여 홍보중임
 - 참여 기업 : Teijin Group, Terumo Corporation, Otsuka Pharmaceutical Co., Unicharm Corporation, Japan Post Group, Tostem Corporation 등 8개 기업임
 - "Better Life from Japan"을 주제로 8개 참가 기업들이 각각 나눠진 전

시관에서 영상, 조형물을 관람객에게 보여줌

- 일본기업관은 한국과 달리 중소기업의 기업들로 구성되고 대기업들은 일본 국가관에 참여하고 있었으며, 이와 같이 이미 많이 알려진 대기업들은 국가관에 참가하고 중국진출을 시도, 확장하려는 중소기업의 기업들로 기업관을 채우는 것도 매우 효과적인 엑스포 활용 전략으로 보임
- 일본 참가기업들이 대부분 식품, 의료 등 생활과 밀접히 관계된 회사들로 구성되어 있어, 깨끗하고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심어주는데 주력하고 있음

(3) 한국/중국/일본 국가관 방문 내용

- 한국관은 "Friendly City, Colorful Life"를 주제로 홍보중임
 - 19.8m 높이의 지상 3층 철골구조 건물로 강익중의 아트 타일 작품과 한글 픽셀로 외장 되었으며 야간에는 LED 경관 조명을 활용하였음
 - 특히, 외관 및 벽면의 한글과 아트 타일, 한글 자모들로 장식된 벽면과 개방형 건물구조 등이 관람객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음
 - Culture, Nature, Humanity, Technology 등의 각 테마로 구성된 전시관은 우리나라의 다양한 면모를 보이는 데 활용되고 있는데, 특히 기업연합관과 마찬가지로 관람객이 직접 만지고 체험하는 interactive 기술을 활용한 전시물들이 많아서 관람객들의 호응이 높음
 - 아울러 한·중 우호 교류관과 여수엑스포 홍보관을 별도 설치하여 한국의 국가이미지를 제고하고 2012년 해양을 주제로 열리는 여수엑스포를 홍보하는데 기여하고 있음
- 중국관은 "Chinese Wisdom in Urban Development"를 주제로 전시 홍보중임

- 상하이 엑스포에서 중국관을 제외한 모든 참가국은 20m의 건축물 높이 제한을 받았던 반면 중국관은 69m의 건축물로 여타 참가국들에 비해 압도적으로 웅장한 크기를 보임
 - 건축물 양식은 “동방의 왕관 (The Crown of the East)”이란 명칭으로 중국의 전통적인 “두공(斗拱)” 구조로 만듦
 - 내부 전시는 중국 북송시대의 생활상을 그린 국보급 “청명상하도”를 벽면에 프로젝션을 이용해 재현하는 것을 시작으로 중국의 과거, 현재, 미래를 전통문화와 현대기술을 접목하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줌.
 - 특히, 물질적 풍요로움 뿐만 아니라 환경보호, 에너지절약 등 삶의 질을 향상 시키는 노력을 크게 강조함.
- 일본관은 "Harmony of the Hearts, Harmony of the Skills"를 주제로 전시 홍보중임.
- 일본 국가관은 Toyota, Canon, Panasonic, Mitsubishi, Fujitsu, Hitachi, Toshiba, Honda, Toray, NEC 등 많은 대기업들이 참여하고 있음
 - 전체적으로 떠오기 새를 아이템으로 일관된 전시 — 환경오염으로 사라졌으나, 일·중 공동 노력으로 다시 살려냄 — 를 보이고 있는데, 특히 떠오기를 매개로 일본과 중국의 동물학자들 사이에 있었던 우정을 광고함으로써 양국 간의 우정을 강조함
 - 환경보호의 문제와 함께 일본이 특히 강한 전자, 로봇관련 기술력을 영상과 시연을 통해 선보임으로써 일본 기업관에서와 같이 깨끗하고 믿을만하다는 이미지를 각인시킴과 것과 동시에 자연스럽게 하이테크 제품들을 광고하고 있음
 - 특히, 1인용 이동수단인 I-Real과 악기연주를 하는 로봇 등 일본관에서만 볼 수 있을만한 첨단 하이테크 제품들이 선보였으며, 이로 인해 중국인들에 대한 일본 기술력의 광고효과는 무척 클 것으로 판단됨

(4) 상하이 사회과학원 방문 면담 내용

- 1958년 설립된 상하이 사회과학원 (Shanghai Academy of Social Sciences, SASS)을 방문하여 양 기관간 협력방안을 논의함
 - 상하이 사회과학원은 산하에 15개의 기구와 19개의 센터를 갖고 있는 중국내 2번째 규모의 사회과학원으로 (북경 사회과학원이 최대) 500여 명의 연구 인력이 중국 전체와 상하이 지역의 각종 정책자문 및 연구 기능을 수행하는 중국내 주요 정책연구기관임
- 양 기관간 상호 정책연구의 관심사와 협력방안 등에 대해 협의함
 - 현재 원장 역할을 대행하고 있는 Xuejin ZUO (Executive Vice President)을 비롯하여 Huang Renwei (Vice President), Jianwen Yang (Institute of National Economy 위원을 겸임), Liu Ming (한반도 센터장) 등과 회의를 가짐
 - 중국 측은 산업구조조정 문제에 대해 큰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 부분에 있어서 많은 경험을 갖고 있는 한국의 연구자들, 특히 산업연구원과의 협력을 크게 기대하고 있음
 - 즉, 중국이 경제, 산업 구조조정에 들어가면서 자동차 산업, 첨단기술 (전략산업), 에너지 관련 산업 등에서의 구조조정에 관심을 보였으며, 중국 산업의 전략적 positioning에 대해서도 고민하고 있음
 - 중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한국이 금융과 제조업의 결합이 잘 되어있다고 평가했으며, 이전의 산업구조조정 경험, 외국 도입기술의 내재화 과정 등에 대해 교훈을 얻기 희망함
 - 관련하여 양 기관 간 공동연구, 공동세미나 등 교류를 활성화하기를 희망하였으며, 우리 또한 양국 경제의 상호 보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적극 검토하기로 함

(5) 기타 방문 내용

- 중국 상하이의 이마트를 방문, 중국시장 특성을 파악함
 - 중국인의 소득수준과 생활수준이 높아지면서 대형 판매매장이 빠르게 성장하고 있으며, 상하이 지역에는 까르푸 등 대형 할인점들이 다수 진출해 있으며, 이마트도 현지 소비자에 대한 인식을 높여가고 있음
 - 물류 산업의 발전 필요성과 사업성이 비교적 큰 것으로 보임
- 중국 상하이 과학기술관을 방문, 일반 시민의 과학기술 의식을 고양하기 위한 정부 노력을 파악함
 - 포동 지역내 대규모 공원녹지에 쾌적하게 위치하고, 체험 시설을 설치함으로써 일반 시민의 접근이용성과 함께 효과성을 극대화함
- 상하이 성시규획관을 방문, 상하이 도시의 발전과정과 동인을 파악함
 - 조그만 어촌에 불과했던 상하이 도시가 불과 150여년이라는 짧은 기간 동안에 세계 속의 도시로 급성장해온 발자취와 변화 동인을 파악함